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어머니와의 재회

오랜세월을어머니곁을떠나살아온영실에게 신의축복이내려졌다.

이런기쁨은거저얻은것이아니라그의노력과 성실의결실이었다.

고향으로돌아가기전날밤 영실은변해있을어머니의모습을생각하며잠을이룰없었다.

‘ 어머님은얼마나변하셨을까? 혹시편찮으신건 아니겠지. ’

그의머리속은5년 전의젊고윤기있는검은머리카락을가진어머니의모습으로가득했다.

“ 어머니, 어머니머리는꼭 기름을바른것 같아요. 어쩌면그렇게검을까? ”

“ 후후. 그게그리궁금하느냐? ”

신기해하며쉴 새 없이 질문을쏟아내는그를향해그의어머니는항상인자한모습으로미소를띠곤 했다.

‘ 어머님, 잠시만기다리세요. 제가곧갑니다. ’

영실의귓가엔 언제 흘렀는지눈물이 고여 있었다.

들뜬마음에잠을설친영실의모습은신행가는 새신랑처럼매우상기되어있었다.

“ 꼬끼오, 꼬끼오. ”

새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관내에 울려 퍼졌다.

영실의 귀에는 더욱 크고 선명하게 들렸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새 옷의 대님을 매며 영실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치 한 마리가 소리를 내며 하늘 위를 빙빙 돌다 처마 위로 내려앉았다.

'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는 걸 어찌 알았누.'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가까이 갈수록 영실의 마음은 설레였다.

멀리서 낯익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향땅이었다.

'어릴 적 놀던 그 곳. 어머님의 고향. 꿈속에서 가보던 곳이구나!'

어릴 적 아이들과 놀다 쉬던 느티나무, 몰래 글을 훔쳐 배우던 서당. 영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들어서는 영실의 눈앞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검었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쇠고, 희고 맑던 피부는 가늘고 굵은 주름살로 가득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그 동안 흘러간 긴 세월을 실감할 수 있었다.

두 모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영실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어머니의 방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한쪽 구석에 놓인 옷감과 그 위에 잘 정돈된 이불들, 그리고 그 옆 모퉁이의 반짇고리 등.

"어머니, 더 이상 걱정 마세요."

영실은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하며 사또가 이곳에 새 집을 주셨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간간이 영실이 관기의 자식이라며 받은 수모를 말할 때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어린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그립게 여긴 적 없어요."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의 생활은 행복했다. 마을 사람들도 영실 모자의 기쁨을 자신들의 일처럼 여겼다.

"영실이, 참 대단하구먼.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눈에 띄더니만."

"어디 그뿐인가? 영실이는 효자야. 그동안 보고파서 어찌 살았누."

영실 모자의 이야기는 늘 화제가 됐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
왕연중 記